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8(土)	29(日)
맑음 9/24℃	맑음 11/22℃

#### News

- 사학법 개정안 합의 실패 ②
- 해남 공룡박물관 개관 ③



- 지성, 부상 심각-美서 검사 ⑧

#### Jeollado

- 그 사람-문성길 前챔프 ⑦

#### Entertainment

- 종경가수들 잇단 부활 ⑧
- 女優들의 반란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땅콩 ⑬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1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 360-5000

### ■ 아파트 분양시장 파워우먼 나연희씨



14번째 아파트 분양에 나선 나연희 소장(사진 오른쪽)이 고객에게 모델하우스 내부를 설명하고 있다. 인테리어 전문가인 나 소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분양시장의 파워우먼과 과시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주부의 마음 콕콕 집어내니 아파트 분양전쟁 백전백승

“전쟁터에서 지형지물을 제대로 파악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처럼 분양시장에서는 가장 지역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성공의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우건설 여수·순천 주택전시관 나연희 소장(여·51)의 업무 철학이다.

나 소장은 지난 1999년 이후 14번째 도전 무대로 여수시 문수지구 ‘피오레’의 분양 공략에 나섰다.

남성 일색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세월에 나서고 있는 나 소장은 오랜 경험과 전문가로서 노하우와 여성 특유의 섬세한 카리스마가 강점이다.

“여성이 지닌 섬세함이나 부드러운 품격이 딱딱하기 쉬운 아파트 분양시장 경쟁을 원활하게 하는 유효한 같은 역할을 하죠”

또 주택 구입과정에서 주부들의 권한이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주부 입장에서 상담에 응해 구매자들의 마음을 움직

####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

#### 설계 단계부터 의견 제시

#### 대우 피오레 등 14곳 활약

인다는 것이 나소장의 전략이다.

나 소장이 건설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3년 삼성건설에 과장으로 특채되면서 부터. 순천 출신인 나 소장은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실내디자인을 전공한 뒤 20여년간 대학 강단에서 산업디자인을 가르친 실력파.

삼성건설에 입사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접한 나소장은 삼성건설이 96년말 지방사업을 중단하자 대우건설로 이직했다.

나소장은 지금까지 14개 현장의 분양소

장을 맡을 만큼 공동 주택 공급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이기도 한 나 소장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나 소장은 현지 시장조사에서부터 인테리어 분석, 대내외 홍보, 현지 실정에 맞는 분양가 산정까지 1인 5역을 가까이 소화하고 있다.

철저한 지역 분석이 성공 분양과 직결된다는 신념에 따라 여수 문수지구에 공략에 나선 나 소장은 모든 홍보물에 여수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박람회 유치 기념 홍보물을 게재했다.

“전남 동부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2012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실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웃는 나 소장의 얼굴에서 14번째 도전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전남체육회 간부 살인극

### 도민체전 도중 씨름협회 임원 찌르고 도주

전남도민체전 기간 중 전남도 체육회 한 간부가 씨름협회 간부들에게 흥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6일 밤 8시45분께 강진군 강진읍 H 식당에서 전남도 체육회 정건철(61) 사무처장이 전남도 씨름협회 신명석(51) 전무이사를 흥기로 찌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날 신 전무와 함께 있던 씨름협회 백낙천(58) 회장이 정 처장이 휘두른 흥기에 손바닥 등을 찌러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살인사건은 전남도 체육회 운영 주도권을 놓고 빚어진 체육회 간부간의 갈등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정 처장이 전남 씨름협회 간부와 말

다툼을 벌인 점과 미리 흥기를 준비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계획적인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체육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정 처장의 휴대전화가 27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발견됨에 따라 형사대를 서울로 급파하고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열린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참석하기 위해 강진에서 머물고 있었다.

한편, 도체육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놀랍고 부끄러운 일로 고인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 전무의 장례는 전남도 체육회 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강진=안현주·김여울·이병철 기자

## 생보사 상장 길 열렸다

### 금감위 개정안 승인... 18년만에 '이익배분 논란' 종지부

#### 상장 1호 교보생명 유력

생명보험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18년 만에 열렸다.

교보생명이 유력한 상장 1호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들은 상장을 통해 자본 확충과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질적·양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상장 규정 중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생명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생명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됐다.

상장 차익의 보편 가입자 배분 논란을 없애고 상장 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연초에 국내 생보사는 법률상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로 운영해 왔으며 보

험 가입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 이들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상장안을 마련했으며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상장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보생명이 1989년 4월 기업공개로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생보사 상장 논의가 시작된 이후 18년 만에 상장 차익의 배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상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는 내부 유보율과 경영 실적 등 상장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해 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3월 결산 기준 계약자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삼성·흥국·교보·신한·농협·LIG생명으로 이중 지급여력비율이 낮아 자본 확충이 시급한 교보생명이 상장에 가장 적극적이다.

주관사 선정과 심사, 공모, 상장 심사 등 상장 절차를 밟는데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연말에 첫 상장 생보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크게 달라진 2008 대학입시

종로학원과 대학 입학처장들이 대학별 입시전형 특징을 알기 쉽게 콕 찌어 설명해 드립니다.

참가대학 |

건국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국민대학교  
 송실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주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시 2007. 4. 28(토) 14:00 ~ 16:00  
 장소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롯데백화점연)

주 최 : 종로학원  
 행사문의 : 장동점 232-5800 봉선점 673-2100

\*무료 제공 : '참가 대학 2008 입시전형 자료집', '참가 대학별 대학 안내 브로슈어'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이사

**종로학원**  
www.jongro.co.kr

강남종로학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교 앞 Tel (02)541-1881  
 강북종로학원 서울 중구 종림동 한국경제신문사 앞 Tel (02)392-1881